

기사입력 2019/01/07 11:50

인쇄하기

2019년 제37회 학술대회 “세계 시민을 육성하는 한국어 교육”을 위한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집행부 및 지역협의회 회장단 연석회의 개최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이사장, 회장단, 신문규 주미대사관 교육관

• 일시: 2019년 1월 4일(금) - 6일(일)

• 장소: Double Tree by Hilton Hotel Seattle Airport

• 참석자: 오정선미 제 19대 총회장 및 집행부, 14개 지역협의회 회장단, 김용순 19대 임시 이사장, 이현숙 서북미지역 이사장, 서북미지역 회장단

• 손님: 이형종 주시애틀 총영사, 손호석 주시애틀 교육영사, 신문규 주미대사관 교육관, 박상화 워싱턴 교육원장, NAKS SAT출제팀, 수준별 역사문화 교육자료 개발팀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주최하는 제37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가 시애틀에서 개최된다. “세계 시민을 육성하는 한국어 교육”이라는 큰 주제 아래 한국은 물론 미국 내에 있는 한국어 관련 기관들과도 연계하여 우리 선생님들이 한국어 교사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 가는데 도움이 되는 학술 대회가 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를 준비 하기 위해 오정선미 총회장을 비롯 14개 지역협의회 회장단과 집행부들이 2019년 1월 4일 - 6일에 Double Tree by Hilton Hotel Seattle Airport 에 모여서 연석회의를 열었다.

첫날인 1월 4일 개회식에는 이형종 주시애틀총영사, 신문규 주미대사관 교육관, 박상화 워싱턴 교육원장, 이현숙 서북미 지역협의회 이사장이 참석하셨다.

오정선미 총회장은 “연석회의에서 뜻있는 논의를 즐겁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이어 이형종 주시애틀 총영사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집행부와 지역협의회장단이 학교 운영 관리기준 마련에 대해 논의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힘껏 지원을 하겠다고 격려했다. 신문규 주미대사관 교육관께서는 교육에서 교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며 교사 하나 하나가 독립투사처럼 깨어서 화합과 협업을 통해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현숙 서북미 지역협의회 이사장은 한국학교 교사는 민간 외교관이라고 말씀하시며 한국학교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선생님들의 수고에 감사를 표했다.

첫날인 1월 4일 개회식에는 이형종 주시애틀총영사, 신문규 주미대사관 교육관, 박상화 워싱턴 교육원장, 이현숙 서북미 지역협의회 이사장이 참석하셨다.

오정선미 총회장은 “연석회의에서 뜻있는 논의를 즐겁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이어 이형종 주시애틀 총영사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집행부와 지역협의회장단이 학교 운영 관리기준 마련에 대해 논의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힘껏 지원을 하겠다고 격려했다. 신문규 주미대사관 교육관께서는 교육에서 교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며 교사 하나 하나가 독립투사처럼 깨어서 화합과 협업을 통해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현숙 서북미 지역협의회 이사장은 한국학교 교사는 민간 외교관이라고 말씀하시며 한국학교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선생님들의 수고에 감사를 표했다.